

2026.06.25.

코리아세븐의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변경: A(S)/A2 → A(N)/A2

이주원 기업2실 선임연구원 김미희 기업2실 수석연구원 최한승 기업2실 실장
02.368.5518 02.368.5418 02.368.5324
leejw@korearatings.com mhkim@korearatings.com hschoi@korearatings.com

한국기업평가(이하 ‘KR’)는 2026년 6월 25일자로 (주)코리아세븐(이하 ‘동사’)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고, 등급전망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으로 변경하였다.

[표 1] 등급전망 변경 내역

회사명	대상채권	종전		금번	
		등급	Outlook	등급	Outlook
(주)코리아세븐	무보증사채	A	안정적	A	부정적
	기업어음	A2	-	A2	-

1. 등급전망 변경 사유(Key Rating Rationale)

금번 등급전망 변경은 1) 한국미니스톱 인수 이후 손실 및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 2) 중단기 외형 성장 및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점 등을 반영한 것이다.

1) 한국미니스톱 인수 이후 손실 및 과중한 재무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미니스톱과의 사업통합 과정에서 비용이 확대되고 경쟁사 대비 낮은 점포당 수익성이 지속되면서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저수익 점포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점포 수는 2024년말 12,152개에서 2026년 3월말 11,040개로 감소하였다. 점포 감축 영향으로 2025년 매출은 4.8조원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하였으며, 2026년 1분기 매출도 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하는 등 외형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점포 구조조정에도 가맹점주 지급수수료, 세븐일레븐 기술사용료 등 사업구조상 내재된 비용 부담이 지속되면서, EBIT/매출은 2025년 -1.4%, 2026년 1분기 -1.8%로 영업적자 기초가 이어지고 있다.

[표 2] 편의점 점포 수 및 동사 점유율 추이

(단위: 개)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6.03
편의점 점포 수	50,765	53,837	54,875	54,856	53,266	
동사 점포 수	11,173	14,265	13,137	12,152	11,040	11,040
점유율	22.0%	26.5%	23.9%	22.2%	20.7%	

주) 동사 점포 수에는 바이더웨이 및 미니스톱 포함
자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사 제시 자료

RATING ACTION & FORWARD LOOKING - 코리아세븐의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변경

[표 3]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2 (연결)	2023 (연결)	2024 (개별)	2025 (개별)	'25.1Q (개별)	'26.1Q (개별)
매출액	54,540	56,918	52,975	48,227	11,363	10,758
편의점	54,256	56,592	52,975	48,227	11,363	10,758
금융	284	326	-			
(점포당 매출액)	3.74	3.96	4.48	4.57	3.65	3.73
EBIT	-49	-551	-844	-686	-340	-197
EBITDA	3,211	3,023	2,618	2,384	461	507
EBIT마진	-0.1%	-1.0%	-1.6%	-1.4%	-3.0%	-1.8%
EBITDAMA진	5.9%	5.3%	4.9%	4.9%	4.1%	4.7%

주) 1. 점포당 매출액은 매출액/((전기말 점포수+당기말 점포수)/2), 분기별 점포당 매출액은 연간 환산하여 기재
 2. 미니스톱의 실적은 2022년 2분기부터 반영, 2024년 이후 롯데씨비이에스711 흡수합병으로 개별 재무제표만 작성
 3. 금융부문 매출은 2024년 이후 중단영업손익으로 반영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영업적자에 더해 차입 부담에 따른 금융비용이 가중되면서, 순손실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2025년 6월 신증자본증권 1,000억원 발행과 2025년 9월 ATM 사업부 매각(155억원)으로 레버리지 지표가 일부 회복되었으나, 2026년 3월 말 기준 부채비율 476.4%, 차입금의존도 47.5% 등 재무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2025년 발행한 신증자본증권은 금리 Step-up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동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지표 이상으로 판단된다.

[표 4] 영업실적 추이

(단위: 억원, %, 배)

구분	2022 (연결)	2023 (연결)	2024 (개별)	2025 (개별)	'26.1Q (개별)
OCF(총영업현금흐름)	3,139	2,775	2,271	2,113	400
운전자본투자 등	446	-460	771	118	311
NCF(순영업현금흐름)	2,693	3,236	1,501	1,995	88
자본적지출	1,892	1,120	720	463	107
FCF(잉여현금흐름)	800	2,116	781	1,532	-19
영업자산의 처분	6	16	69	31	4
투자자산의 처분(net)	9	218	35	32	15
총차입금	10,926	12,286	11,722	8,654	8,731
리스부채	3,597	3,630	3,164	2,755	2,652
순차입금	8,446	8,465	9,015	7,326	7,629
순차입금-리스부채	4,848	4,835	5,851	4,571	4,977
총자산	26,137	25,825	22,440	18,828	18,375
총부채	19,161	20,927	18,749	15,296	15,187
부채비율	274.7	427.2	507.8	433.1	476.4
차입금의존도	41.8	47.6	52.2	46	47.5
EBITDA/금융비용	10.8	5.6	4.4	4.1	3.8
순차입금/EBITDA	2.6	2.8	3.4	3.1	3.8

주) 2024년 3월 롯데씨비이에스711 흡수합병으로 개별 재무제표만 작성
 자료) (연결)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2) 중단기 외형 성장 및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2026년에는 폐점과 출점 규모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외형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익성 중심의 출·폐점 정책, 인력 효율화, 부진 위탁점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용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2026년 5월에는 월간 기준 영업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편의점 시장의 성장세 둔화와 상위권 업체의 시장지배력 강화 기초, 경쟁사 대비 낮은 점포당 수익성, 로열티·물류비 등 높은 고정비 부담을 감안할 때 유의미한 수준의 수익성 개선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사업규모 축소가 중장기적으로 사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경우 영업권 등 유·무형자산에 대한 추가 손상 가능성도 상존한다.

자체 영업현금 창출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은 단기간 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약화된 재무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투자 축소와 함께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로열티 감면 협의 등 자본확충 및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자본확충과 로열티 감면 협의 등은 실행 여부와 규모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으로 향후 자구계획의 실행 수준과 이에 따른 영업실적 및 재무안정성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3) 롯데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이 반영되었다.

롯데그룹은 소매유통, 음식료, 호텔 등 주요 사업부문에서 선도적인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사업역량과 대외신인도를 보유하고 있다. 롯데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동사 지분 98.5%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는 그룹 유통 포트폴리오의 주요 축으로서 유통 계열사들과의 사업적·전략적 통합도도 높은 수준이다. 또한 과거 유상증자 등 계열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이력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계열의 지원의지는 높은 수준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롯데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을 동사 신용도에 반영하였다.

2. KR의 전망

1) Key Factor의 가정

KR은 동사의 향후 신용도 방향성에 있어 '영업실적 개선을 통한 자체 현금창출력 회복 여부'와 '자본확충 및 비용부담 완화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수준'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점포 구조조정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과 '자구계획 실행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가 Key Factor가 될 것으로 본다. Key Factor에 대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 **점포 구조조정 및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점포 수와 매출 규모는 축소되고 있으나, 비효율 점포 정리에 따른 고정비 부담 완화와 점포당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실제로 비용구조 개선 노력에 힘입어 2026년 5월 월간 기준 영업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경쟁사 대비 낮은 점포 효율성, 로열티·물류비 등 사업구조상 높은 비용 부담을 감안하면, 단기적인 월별 흑자 전환만으로 영업 정상화가 확인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폐점 효과에 따른 손익 개선이 외형 축소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고, 안정적인 영업흑자 기조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다.

RATING ACTION & FORWARD LOOKING - 코리아세븐의 등급전망 ‘부정적’으로 변경

- **자구계획 실행에 따른 재무부담 완화:** 누적된 영업손실과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해 재무안정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다.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해 자본 확충과 레버리지 지표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2026년 3월말 기준 부채비율과 차입금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분류되더라도 금리 Step-up 조항과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상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체 영업현금창출력만으로 단기간 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투자 축소, 유상증자, 추가 자본성 조달, 로열티 감면 협의 등 자구계획의 실행 여부가 중요하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실행 시기, 규모,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향후 자본확충의 실현 수준과 비용부담 완화 효과가 재무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2) 등급변동요인의 추정

저수익 점포 폐점 등 구조조정으로 외형이 축소되는 가운데, 상위업체 대비 낮은 점포당 채산성이 지속되며 사업 경쟁력이 과거 대비 약화되고 있다. 자본적지출 축소, 자산 매각,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 힘입어 2026년 3월말 순차입금/EBITDA는 3.8배를 기록하였으나, 2025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경우 발행 2년 경과 시점부터 금리 Step-up 조항이 적용되어 조기상환 압력이 내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재무부담은 지표 이상인 것으로 것으로 판단한다.

[표 5] 코리아세븐 등급변동요인

하향변동요인 A(N) → 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출 감소 등 사업경쟁력 약화✓ 순차입금/EBITDA > 4배
------------------------------	--

[유의사항]

- (1) 한국기업평가(주)(이하 '당사')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은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분석 시점에서의 당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당사가 제공하는 보고서 등의 제반 연구자료(이하 '간행물')는 상기 특정 금융상품, 금융계약, 발행자 등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당사 또는 필자 개인의 견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용위험을 제외한 다른 위험(금리나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치 변동위험, 해당 증권이 유동성위험, 내부절차나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영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등급 및 간행물에 포함된 당사의 의견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한 진술이 아니며, 당사 고유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의 미래 상황능력 등에 대해 예측한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러한 예측정보는 실제 결과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환경변화 및 당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2) 신용등급 산출 및 간행물 발간(이하 '신용평가업무 등')에 이용되는 모든 정보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각종 공시자료 등의 자료원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며, 당사는 제3자 요청 신용평가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산출 시 제출자료에 거짓이 없고 중요사항이 누락되어 있지 않으며 중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으로부터 수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평가대상회사 또는 기관 및 이들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실사나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보의 오류 및 사기, 허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3) 당사는 신용평가업무 등 과정에서 이용되는 정보에 대해 별도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분석자·분석도구 또는 기타요인에 의한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신용등급 및 간행물의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증하거나 약속하지 않습니다. 당사 간행물의 모든 정보들은 신용평가업무 등에 필요한 주요한 판단 근거로서 제시된 것으로 평가대상에 대한 모든 정보가 나열된 것은 아니며,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사 신용등급 및 간행물 상의 정보이용으로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당사는 금융상품의 매매와 관련한 조언을 제공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특정 유가증권의 매수, 매도 혹은 보유를 권유하는 정보가 아니며 시장 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정보도 아닙니다. 당사의 신용등급 및 간행물은 그 내용으로 이용자의 투자결정을 대신할 수 없고 금융상품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이용자들은 스스로 투자대상의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각자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당사의 신용등급과 간행물은 시장 전문기관을 일차적인 이용대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개인투자자에 의한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이용하여 개인투자자 스스로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공시되지 않은 신용등급이나 제3자 요청 신용평가에 따라 산출된 신용등급의 경우 신용평가 요청인 이외에는 해당 신용등급을 믿고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 (5)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사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Copyright 2026, Korea Ratings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대표전화: 368-5500 FAX: 368-5353.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은 한국기업평가(주)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정보도 당사의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재되거나 복사, 인용(또는 재인용), 배포될 수 없습니다.